

○

외환리포트

전일동향

전일대비 8.40원 하락한 1,266.60원에 마감

18일 환율은 전일대비 8.40원 하락한 1,266.60원에 마감했다.

이날 환율은 NDF 증가를 반영해 전 거래일 대비 7.50원 하락한 1,267.50원에 개장했다. 글로벌 달러화 약세에 겹다운 출발한 환율은 개장 초 추가 하락 시도가 있었으나 결제 수요가 유입되며 낙폭을 축소하였다. 1,270원대 초반에서는 네고 물량의 유입으로 추가 상승이 제한되었다. 팽팽한 양방향 수급 공방을 벌이다 장 후반 조선업체의 수주소식이 전해지자 낙폭을 확대하며 전일대비 8.40원 하락한 1,266.60원에 마감하였다. 장중 변동 폭은 6.60원이었다.

한편, 이날 외환시장 마감시점의 엔-원 재정환율은 979.35원이다.

전일 달러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평균환율
1267.50	1272.80	1266.20	1266.60	1269.30

전일 엔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986.38	986.38	978.14	986.00

전일 유로화 변동

시가	고가	저가	종가
1344.80	1345.89	1324.74	1325.63

F/X(달러-원) 스왑포인트

	1M	3M	6M	12M
보장환율(수출)	0	-0.44	-2.9	-10.47
결제환율(수입)	0.25	0.29	-1.85	-8.59

* 전일자 청약고객이 수취한 스왑포인트로 당일자 청약시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

* 해당월 말일(영업일)까지의 스왑포인트 기준

* 자세한 사항은 환위험관리 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www.ksure.or.kr/rh-fx/index.do>)에서 확인가능

금일 전망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재부상에 리스크 오프...1,270원대 후반 중심 등락 예상

NDF에서 환율은 스왑포인트(0.25원)를 고려하여 전 거래일 현물환 증가(1,266.60원) 대비 8.95원 상승한 1,275.80원에 최종호가 됐다.

금일 환율은 글로벌 리스크 오프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욕증시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재부상하면서 위험선호심리 훼손에 급락했다. 월마트와 타겟 등 대표적인 소매 기업들의 실적 부진에 인플레이션 우려가 향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우려되며 시장의 안전자산 선호심리가 강화되었다. 이에 다우지수는 3% 이상, S&P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4% 이상 하

락하며 2020년 6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금일 국내증시에서도 외국인의 주식 순매도가 예상되며 환율에 상방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네고 물량 유입과 당국 미세조정 경계는 상단을 제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달러/원 예상 범위	1271.67 ~ 1280.00 원
체크포인트	■ 전일 외국인 주식 매매 동향 : +2973.28 억원
	■ 뉴욕 차액결제선물환율(NDF) : 전일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대비 8.95원 ↑
	■ 美 다우지수 : 31490.07, -1164.52p(-3.57%)
	■ 전일 현물환 거래량(종합) : 109.38 억달러
	■ 전일 외국인 채권매매 동향 : +6374 억원

주의사항

※본 리포트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외부기관으로부터 획득한 자료를 인용한 것입니다.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